

‘노 키즈’ ✕ 대한민국에서
‘예스 키즈’ ≡ 대한민국으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노키즈존이 왜 생겨났는지 원인부터 점검을 해보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자식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대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무단으로 방치되고 관리가 안돼서 생겨난 현상을 왜 공론으로 법제화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자식이 좋다면 다른이들도 좋하고 존중받아야 함이 마땅한 이치이겠지요...



키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나쁜 페어런츠가 잘못이죠
이런 토론회를 할 때는 무개념 부모들이 버리고 간 똥기저귀를 치워야 했던 카페업주들
도 초대해 보시길 바래요

좋아요 답글 달기 3일 수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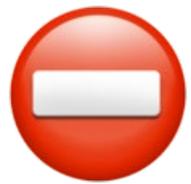


노키즈존을 넘어서기 위한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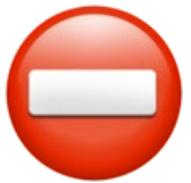
노

시니어 유스 아재
정신질환자 교수 커플
40대 래퍼 중고생 ...

ZONE



‘행동’이 아닌 ‘대상’에 대한 배제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에 대한 거부



꼭 법으로 금지해야 해?

↳ 아동 차별의 실태를 점검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할 국가의 책무

NEW

키즈카페를 더 많이 만들면 되지

↳ 더 많은 '격리'가
노키즈존의 해법은 아니야!



노키즈존은
아동과 양육자를
지워온 사회의 문제다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정치의 과제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모든 어린이는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리를 확인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미래를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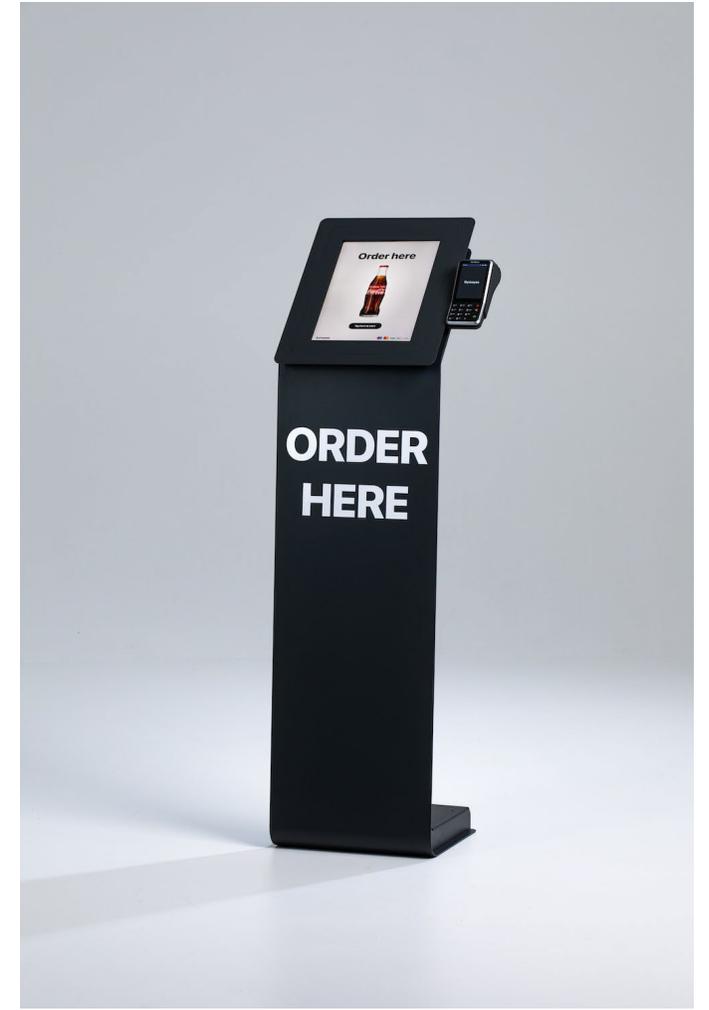
아동은 성인이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간 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도 받지 않은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

-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7호

'노 키즈' ✕ 대한민국에서
'에스 키즈' ≡ 대한민국으로



OK?



노키즈존' 지정금지 조례의 의의와 입법과제 정책간담회

년 6월 16일 (금) 16:00

장소 제주도의회

주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송창권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용혜인

제주서 불붙은 노키즈존 논란...전국 첫 금지 조례 제정될까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상임위서 심사보류...“충분한 논의 필요”

조용히 우태를 안아주는 엄마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해 보였다.

어른들이 조용히 있고 싶고, 아이들이 없어야 편안한 식사를
할수 있다는것을 난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난 생각한다.

어른들이 편히 있고 싶어하는 그 권리보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올수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것을...

그 어린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

어른들은 잊고 있나 보다. 어른들도..구어린이였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아빠에게 물어보는 아들의 대사가 생각난다.

“아빠! 왜 개와 유대인들은 가게에 들어갈수없어요?”

- 이수생각 -

과제 정책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송창권

WELC



환대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어린이 패스트트랙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터 관련 법 개정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여 강화하는 양육자 교육 의무화



우리 모두는
아동이거나
아동이였다



WE WELCOME

ALL RACES AND ETHNICITIES
ALL RELIGIONS
ALL COUNTRIES OF ORIGIN
ALL GENDER IDENTITIES
ALL SEXUAL ORIENTATIONS
ALL ABILITIES AND DISABILITIES
ALL SPOKEN LANGUAGES
ALL AGES
EVERYONE.

WE STAND HERE WITH YOU
YOU ARE SAFE HERE

* Content adapted from the original "We Welcome" sign created by IPRC members Lisa Mangum and Jason Levitt.

아동이
환대받는 사회는

모두가
환대받는 사회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